

2007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 159명 선발

과학기술부는 최근 2007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 최종 후보자 159명(국내 장학생 149명 해외 장학생 10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총 499명이 신청하여 3.13 :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대통령 과학장학생은 3개 영역(논문, 수상, 수능)으로 나누어 3단계(서류심사→심층면접(발표평가)→위원회 종합심사)의 심사과정을 거쳐 창조적 수월성을 찾는 데 심사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국내 장학생의 경우 1인당 연 1천만 원, 해외 장학생은 1인당 연 5만 달러내에서 4년간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와 장학메달이 수여된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장학프로그램으로서 2003년부터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연내 개정 등 -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지난 2월 2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 추진계획(안) ▲연구비관리 인증제 확대시행 추진계획(안) ▲줄기세포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 ▲농림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안) ▲신 산업기술 R&D시스템 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등 5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과 임상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제줄기세포학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호주, 일본, 미국은 복제배아연구 허용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등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 수립(2006년 5월)에 이어 2006년 258억 원, 2007년 3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짓고,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1년간 시범실시된바 있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국가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 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 174개)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산출시 3%p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평가시 A등급 수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동 조사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와는 차별화된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실시되며,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배분하지 않게 된다.

해외석학과의 초일류 국제공동연구 확대 지원

- 2007년도 글로벌연구실사업 시행계획 공고 -

금년에는 해외석학과의 초일류 국제공동연구가 더욱 확대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R&D사업 토탈 로드맵'에서 제시한 기술 중 16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연구실을 신규 공모하여 지원하는 '2007년도 글로벌연구실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2월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지원대상 16개 기술분야는 글로벌연구실사업 기획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가R&D사업 토탈 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의 원천성,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정부지원배분의 효율성, 세계 과학기술발전예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됐다.

대상분야로는 줄기세포응용기술, 나노급 소재 공정기술, 암 조기진단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바이오), 환경보전 및 복원기술, 자연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기술, 유전자 치료기술(맞춤의학), 면역 생체방어 및 감염질환 제어 기술, 나노기반 구조재료, 나노바이오 소재, IT 나노소자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이다.

과기부는 지난해에 총 7개의 글로벌연구실을 선정하여 약 3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추가로 8개 내외의 글로벌연구실을 신규 선정함으로써 총 15개 내외의 글로벌연구실의 국제공동연구에 70여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과총 차기회장에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 차기 회장에 이기준(70) 전 교육부총리가 선출됐다.

과총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진행된 5개 학술분과 18명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이 전부총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이 차기회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서울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다.



‘글로벌연구실’ 사업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국제공동연구사업과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기존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비해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5억 원 규모), 지원기간도 3년 이상 9년의 범위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단순인력교류, 협력기반구축 등의 외교적 협력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과학기술적 성과를 최대한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모든 연구제안서를 영문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시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발표평가 자체도 영어로 진행된다. 아울러, 해외의 협력 파트너가 직접 발표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연구 목표, 협력 파트너간 역할 분담, 협력 파트너의 탁월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평가 전문가풀도 확보한 상태다. 셋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국제화사업평가지침에 따라 제출서류의 분량, 평가절차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였다. 과학기술부는 향후 1개월에 걸쳐 예비계획서를 접수하여 서면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월 중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07년도 우주개발시행계획 확정

- 위성, 우주발사체, 우주센터 등 총 2,934억원 투자 -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2007년도 우주개발시행계

획’이 지난 2월 2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차관)에서 심의·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2007년도 우주개발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총 2천934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6기의 위성 개발과 소형위성발사체(KSLV-I) 개발,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위성분야에 총 1천571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실용위성 3호·3A호·5호(지구저궤도 관측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국내최초의 정지궤도복합위성), 과학기술위성 2호·3호(핵심선행 기술 확보, 인력양성)의 개발을 진행하며, 우주발사체 분야는 총 1천338억 원을 투자하여 소형위성발사체 개발(958억 원)과 우주센터 건설(380억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중에는 2008년도로 예정된 발사일정을 확정하고 발사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에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정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하게 된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프로그램 추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역에 가면 새로운 과학지식과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우수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지정연구실(NRI)의 연구원들과 과학기술의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간의 지식나눔 행사로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연구보고대회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NRL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고, 국민의 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회를 상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NRL 연구책임자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요소 기술을 중점개발하기 위해 매년 2억~3억 원의 연구비를 5년간 지원하는 NRL을 185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는 5년차, 4년차 연구책임자부터 매주 돌아가며 연구내용을 소개할 계획으로, 그 첫주자는 인하대 최순자 교수의 ‘진주보다 비싼 고분자 입자-그 응용과 미래’라는 주제가 2월 23일 무대에 올랐다.

서울역은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며, 금요일 저녁 8시는 한주일의 일과를 마치고 휴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직장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STEP 제4대 원장에 조영화 박사 선임



국가과학기술기획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4대 원장에 조영화 박사(54)가 선임됐다. KISTEP은 지난 3월 5일 임시 이사회에서 조 박사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조 신임 원장은 충북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 2대 원장 등을 역임했다.

글로벌 항암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3개 출연(연) 협동연구 본격 착수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항암제 후보물질도출을 위해 3개 출연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손을 맞잡고 지난 2월 28일 협동연구에 들어갔다.

3개 출연연의 협동연구는 국내 신약개발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06.2월)에 따른 것으로, 동 전략의 중점과제 가운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과제 중 첫번째 사례다. 이번 협동연구는 그간 개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온 3개 출연연이 협동하여 항암제 후보물질도출을 목표로 전문화된 사업단을 구성하고 동 사업단에 연구비 운용 및 과제 선정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약개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시범사업단은 항암제 후보물질도출에 집중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의 타사업 참여 제한, 연구비 풀제 및 유연한 과제 관리, 사업단장의 민간영입, 민간수요를 고려한 작용점 선정, 글로벌 기준의 단계별 물질 평가 등을 통해 3개 출연연의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 모델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동 사업단의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 2월의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에 따라 신약개발 R&D 사업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산자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나라 신약개발의 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행정 출범 40주년 과학의 달 행사 풍성

- 기념식은 4월 20일, KIST잔디광장예정/ 과학의 달 표어도 선정 -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탄생 1주년인 지난 1968년 4월 21일부터 개최되어 온 과학의 달 행사가 금년으로 4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제40회 과학의 날 기념식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4월 20일(금) 오전11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식전행사,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과학기술의 미래 2030 특별 기획 전시 등이 준비되고 있다.

기타 전국행사(지역별, 기관별 검색 등)는 40주년 과학의 달 홈페이지(www.science40.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행정 40주년 기념 및 2007년 4월 과학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공모한 과학기술 표어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1편) - 과학한국 40년!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

△우수상(2편) -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 과학기술입니다

△가작(6편) - 함께 하는 과학기술, 함께 여는 밝은미래/ 내가 꾸

‘디지털 교과서’ 시대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 상용화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말한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용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등 방대한 학습자료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문서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각기관의 학습자료 DB와 연계하여 폭넓은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 밑줄, 노트 기능도 갖고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 기능을 갖고 있어

학생들은 교과서만으로도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춘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식의 생명주기가 단축되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현행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과내용을 적시에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 2002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학교현장에서 실험 적용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에 필요한 다각도의 분석을 위해 우선 디지털교과서 수업학교를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된 초등 5, 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 6학년 전과목과 중학교 1학년 3개 과목, 고등학교 1학년 2개 과목을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세계적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참여하는 학습, 생동하는 교실로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영역까지 폭넓게 연계 확대될 수 있어 교육복지 국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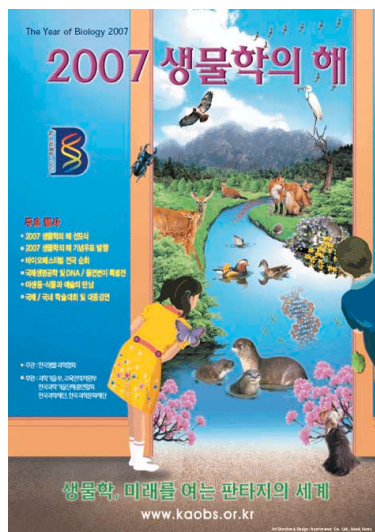
는 꿈, 바로 과학입니다/ 함께 해요 과학기술, 함께 가요, 밝은 미래 / 미래로 가는 과학기술,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고갈되지 않는 미래의 자원입니다/ 과학, 미래를 향한 도약의 힘

‘2007 생물학의 해’ 선포식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미래 꿈나무들에게는 생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한 ‘2007 생물학의 해’ 선포식이 지난 3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올해 ‘생물학의 해’에는 한국생물과학협회(www.kaobs.or.kr) 주관으로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참여하여 바이오축전, 자연사박물관 행사, 바이오 전시행사, 학술심포지엄 및 대중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 예정되어 있다.

동 행사는 과학기술부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을 ‘과



학기술의 해’로 정하고 2004년 ‘과학문화의 해’, 2005년 ‘물리의 해’, 2006년 ‘화학의 해’ 2007년 ‘생물의 해’에 이어, 내년에는 ‘지구의 해’로 추진할 계획이다. (ST)

정리 | 이창규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